



지난 6~7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아이다'의 한 장면.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 '감동의 하모니'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 첫 정기공연 '아이다'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온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와 아이다의 고국을 공격한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는 돌무덤 안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안타까운 운명으로 만나 사랑을 한 남녀의 최후다. 오페라 '아이다'의 마지막 장면, 무덤 속 서로 끌어안은 두 주인공은 신의 축복을 받는 듯 행복함에 젖어있다. 베르디의 선율 역시 이들의 사랑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지난 6일~7일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지난해 8월 창단 후 첫 번째 정기공연으로 오페라 '아이다'를 선보였다. 총 5억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번 공연에는 약 2300여 명의 관객들이 문예회관을 찾았다.

베르디의 대표작인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와 적국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렸다.

이번 공연은 더블캐스팅으로 6일에는 아이다 역에 이탈리아 라 스킨라 극장에서 인정받은 아나루크레치아가, 라다메스 역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선 테너 신상근이 출연했다.

7일 공연은 지휘자 이바울 크린체프가 이끄는 디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에 맞춰 아이다 역의 소프라노 고헤나, 암네리스 역의 메조소프라노 산야 아나스타사, 라다메스 역의 테너 호르야네스 아이르지안 등 출연자들의 음색이 잘 어우러진 무대였다. 정상급 성악가들의 짝 찬 소리를 한 무대에서 만나보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6·7일 이틀공연 2300여명 관람
루크레치아·고현아 더블캐스팅
의상·소품 화려한 볼거리 눈길
몰입 방해한 무대 장치 아쉬워

특히 호르야네스 아이르지안은 지난해 3월 이탈리아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이미 라다메스 역을 연기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그는 권력을 향한 야심과 동시에 사랑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절절하게 그려냈다.

고국과 아버지를 두고고 적국의 장군 라다메스를 사랑하는 아이다 역을 맡아 지금까지 보지 못한 풍부한 성량으로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한 고헤나는 빈 슈타츠 오페라에서 동양인 최초 주역으로 활동 중이다.

라다메스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다를 질투하며 분노하는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는 이탈리아 아레나 디 베로나의 오페라 '아이다'의 주역 산야 아나스타사가 맡아 열연했다.

아이다의 아버지인 아모나스로 역에는 김동섭이 출연했으며, 이집트 왕 역은 김일동이, 람피스 역은 박준혁이, 무녀장 역은 임경아가 맡았다.

공연 중 우리 귀에 익숙한 '개산행진곡'인 '이집

트'의 영광'에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느새 세 남녀의 호소력 짙은 아리아가 관객들을 더욱 집중시켰다.

아이다와 암네리스가 벌이는 2막 1장의 2중창,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부르는 3막 2중창, 암네리스와 라다메스가 벌이는 4막 1장의 2중창 등은 배역간 갈등이 선율에 고스란히 담겨 감동을 자아냈다.

하지만 무대 장치 등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당초 정갑준 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홀로그래프 기법과 맵핑을 강조하며 가장 현대적이고 미학적인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보다는 오히려 허전하게 보여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아이다'와는 맞지 않았다. 또 조명 등을 비롯한 무대효과 역시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러브스토리에 관객들이 몰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대 앞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삼각형 모양의 오브제는 배경인 고대 이집트를 암시,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출연진들의 의상과 소품 등은 고대 이집트의 향취를 물씬 담겨 관객들을 고대 이집트로 스며들게 했다.

공연 내내 주인공들과 함께 짝 찬 무대를 선보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의 목소리는 한층 더 웅장한 무대를 선사했다.

또 이날 공연에 출연한 광주시립발레단원인 보그단과 그 외 단원들은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용으로 지루할 뻔했던 공연에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열광적인 갈채를 이끌어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 방문연구' 지원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이하 ACC)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내·외 아시아 문화 연구자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시아 문화 자원을 연구하고 창작자에 필요한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연구소를 운영

하고 있는 ACC는 '2018 아시아문화 연구소 방문 연구 프로그램(ACC_R Fellow 2018)' 지원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을 포함 국내외 연구자의 지원이 가능하며, 중견학자와 신진학자'로 나눠 공모를 시행한다. 주제는 아시아 지역 인문·

사회·예술 분야 연구와 아시아 창작자·교육·전시·공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문 연구를 비롯해 ACC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 내에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다. 참가자는 최소 2~6개월 동안 희망기간 내 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자격에 따라 월 160만~240만원을 지원받는다.

관련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바람처럼 봄·봄·봄'...강남구 초대전

30일까지
갤러리카페
스페이스 모모



▶공간·생명력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목에 눈부신 홍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사실적으로 그려낸 봄은 석류알 하나하나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

서양화가 강남구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남구 봉선동 갤러리 카페 스페이스 모모에서 열린다.

'꽃바람처럼 봄·봄·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에 작업 중인 매화 연작과 다양한 꽃그림, 봄은 석류 등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몇년전부터 작업하고 있는 '공간·생명력' 시리즈는 이제 막 꽃망울을 하나 둘 터트리기 시작한 매화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보여준다. 특히 은은한 파스텔톤을 배경으로 한 매화는 강렬한 색감을 전해주며 흰 바탕 위의 매화는 또 다른 감성으로 다가온다. 다양한 형상의 가지들 따라 매달린 꽃들의 배치 역시 같은 듯 다른 느낌이다.

100여평 규모의 스페이스 모모는 세련된 분위기의 갤러리카페로 다양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강 작가는 지금까지 31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SOAF, 부산국제아트페어, 한국구상대제전(예술의전당) 단체전 및 초대전 등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무등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전업작가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문의 062-671-08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산묵회 회원전 11일까지 갤러리 봄

산묵회(山墨會·회장 백계철) 두번째 회원전이 오는 11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갤러리 봄'에서 열린다.

'산묵회'는 전남대 평생교육원 한국화반에서 정산 백현호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문학생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많게는 14~15년, 적게는 4~5년간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운·김상인·김선부·김영의·김용운·김원영·류희남·서병운·이용신·이제택·황백·홍은아씨 등 30여명의 회원이 수묵담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내놓았다.

회원들의 작품에서는 시시각각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사계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월출산의 겨울, 한적한 금오도의 모습, 단풍과 어우러진 기암괴석과 운무 등 시시각각 변하는 산하의 풍경과 아름다운 꽃을 화폭에 담았다. 백현호 선생도 '봄이다'를 찬조 출품했다. 문의 010-9078-18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계철 작 '물소리 바람 소리'

광산구립합창단 신임 지휘자 정요원씨 위촉

광주 광산구는 지난 5일 광산구립합창단 신임 지휘자로 정요원 씨를 위촉했다.

신임 정 지휘자는 조선대 음악교육과 졸업 후 장로회 신학대학원과 미국 노스텍사스 주립대학원에서 합창지휘 석사를 취득했다. 순천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을 비롯해 경기도환경여성합창단, 광주여성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했다.

정요원 지휘자는 "단원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빛깔의 합창음악을 선사해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0년 창단한 광산구립합창단은 광주 자치구 유일의 남녀혼성으로 정기연주회, 국제교류음악회, 재능나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벗님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